

우리의

Dual Society의 문제



명지대학교/컴퓨터학부 교수 이기현

우리는 IMF이후 사회 각 분야 구성 조직들이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2001년 벽두부터 매스컴들은 반갑지 않은 뉴스들로 가득하다.

2세 교육문제로 조국을 떠나는 이민 행렬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든가, 자동차, 건설분야 회사들의 부도사태와 금융사들의 퇴출, 의약분업사태, 가계 대출 급증으로 가계 빚 264조원 등등 내노라하는 기업들의 파산과 붕괴, 많은 실업자들의 발생, 불안한 경제, 의약분업의 진통, 의료보험재정의 파탄 등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매우 어지럽다.

우리사회는 낡은 정신과 새로운 신문명의 충돌로 정신적 혼란과 공황상태가 지속되는 대전환기에 처한 느낌이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사회의 첨단적인 것과 약 20만명의 점쟁이 등이 함께 공존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전근대적인 것과 현대

적, 첨단적인 것이 혼재하는 2중 사회(Dual Society)이다.

농경사회와 유교문화가 뿌리를 이루는 전통지향적 성격은 가족주의적 행동양식과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종적인 인간관계, 체면의식과 폐쇄주의를 만들고 나아가 연고주의와 정실주의를 만들어 부정부패와 법치실종으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

한편 산업사회와 서구문화에 바탕을 둔 서구지향적 성격은 개인주의적이며 타인지향적으로 권위주의 해체, 횡적인 인간관계, 실용주의와 개방주의를 만들고 나아가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게 하여 인간소외와 환경파괴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정치, 경제, 가족, 종교, 교육의 모든 부분에 2중성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Hardware(생산, 자원, 요소)가 갖는 자원격차와 software(경제의식, 경제의지, 가치관, 도덕수준)가 갖는 의식·행동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제도의 확립과 법치의 확립과 정치개혁이 요구된다.

의식·행동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는 의식개혁, 부정부패의 해소, 연고주의의 타파,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핵심가치(Core Value)를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 정체

(Identity)가 분명하고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생물의 행태는 나를 위해 움직이게 마련이어서 이타(利他)보다는 이기(利己)이게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적인 이기와 균형을 잃지 않는 현명한 이기가 필요하다.

장차 이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뿌리가 내리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쉽과 확고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 원칙에 충실한 국정운영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된다.